

‘V12 도전’ KIA, 본격 한국시리즈 담금질 돌입

사흘간 재충전... 오늘 훈련 재개
세 차례 연습경기로 감각 조율
삼성·LG·KT 등 후보군 대비
엔트리는 플레이오프 후 윤곽
21일 챔피언스필드서 1차전

지난 2일 KT위즈와 두산베어스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시작으로 올해 가을야구 막이 오른 가운데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KIA타이거즈가 12번째 우승 도전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선다. 이범호 감독은 상대를 끝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포스트시즌에 오른 팀들을 모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마지겠다는 각오다.

KIA는 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에 돌입한다. 지난달 30일 같은 장소에서 NC다이노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정규시즌 최종전을 마친지 나흘 만이다.

한국시리즈 대비 훈련은 미디어 데이 예정된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경기 개시 시간에 맞춰 주간(오후 2·3시)과 야간(오후 6시)으로 나눠 진행된다. 2·3일 훈련과 1일 휴식 턴이며 1차전을 일주일 앞둔 14일부터는 합숙을 실시한다.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오는 9일과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지난달 25일 롯데자이언츠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6차전을 마친 뒤 한국시리즈 출정식을 갖고 팬들과 함께 응원가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

14일에는 퓨처스리그 남부리그 팀들을 상대로 연습경기도 준비했다. 상무 피닉스와 한차례 맞대결이 유력하며 나머지는 경기 상대는 포스트시즌을 치르지 않는 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

16일에는 자체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한국시리즈 엔트리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을 블랙 팀과 화이트 팀으로 나눠 경기력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선책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범호 감독은 한국시리즈 엔트리 구성

을 위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플레이오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상대를 알 수 있는 만큼 이르면 16~17일, 늦으면 19~20일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감독은 한국시리즈 직행을 확정지은 뒤 “한국시리즈를 경험하며 경기 감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했다. 좋았던 부분과 안 좋았던 부분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투수들은 쉬고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타자들은 1차전에서 안타가 나오나 안 나오나에 따라서 컨디션이

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인 만큼 전력분석팀이나 선수단과 많은 얘기를 하겠다. 정규시즌과는 다르게 안 좋았던 부분들부터 체크하면서 준비하겠다”며 “한국시리즈 엔트리는 상대 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최종 결정이 됐을 때 엔트리를 짤 것”이라고 예고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종료돼 준플레이오프 대진이 완성됐지만 여전히 삼성라이온즈와 LG트윈스, KT위즈까지 세 팀을

두루 대비해야 하는 만큼 고민에 대한 폭도 넓다. 현재 KIA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선발 로테이션 구성과 내·외야 인원 배분이다.

1선발을 두고는 양현종과 제임스 네일이 후보로 꼽힌다. 양현종은 올 시즌 개막 선발진에서 유일하게 이탈하지 않은 자원이고 제임스 네일은 턱관절 골절로 휴식이 있었지만 복귀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에릭 라우어가 3선발에 배치된다면 통상적으로 한국시리즈 선발 로테이션에는 네 명이 들어가는 만큼 김도현과 윤영철, 황동하 중에서 어떤 선수를 4선발로 기용할 지도 택해야 한다. 4선발에 두 명을 앞뒤로 배치하는 1+1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야수진에서는 김도영과 김선빈, 나성범, 박찬호, 소크라테스 브리토, 이우성, 이창진, 최원준, 최형우 등이 엔트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종욱과 김규성, 김호령, 박정우, 변우혁, 서건창, 윤도현, 최정용, 홍종표 등이 백업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시리즈는 4선승제로 오는 21~22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1·2차전을 치른 뒤 24·25일에는 플레이오프 승리 팀 연고지로 경기장을 옮겨 3·4차전을 치른다. 이어 27·29일 다시 광주로 돌아와 5·6·7차전이 진행된다. **한규빈 기자**

‘3전 전패’ 페퍼저축은행, 컵대회 마무리

GS칼텍스에 0-3 완패

장소연 감독 체제로 첫 실전에 나선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3전 전패라는 아쉬운 성적 속에 컵대회를 마무리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 첫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하며 값진 승점을 챙겼지만 이후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와 GS칼텍스 서울Kixx를 상대로는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

페퍼저축은행은 3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세트 스코어 0-3(21-25, 21-25, 22-25)으로 완패했다. 앞서 현대건설과 한국도로공사에 고배를 마셨던 페퍼저축은행은 이번 대회를 3패(승점 1)로 마무리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경기 시작과 함께 이어림의 연속 득점과 박정아의 득점으로 3-0 앞서가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하혜진과 바르바라 자비치, 박정아, 장위 등 고른 공격 루트를 선보이며 10-3까지 격차를 벌렸으나 20-16에서 8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20-24 역전을 허용했고 끝내 21-25로 첫 세트를 내줬다.

이어 2세트에서 페퍼저축은행은 실바와 스테파니 와일러에게 크게 고전하며 9-15까지 벌여졌지만 상대 범살을 유도하는 동시에 교체 투입된 박경현의 공격이 터지며 20-22까지 추격했다. 하지만 21-23에서 와일러에게 킥오픈을 허용한 뒤 서브에이스까지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다.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 들어 분전했다. 장소연 감독이 자비치와 박사랑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박경현과 박수빈에게 기회를 준 상황에서 세트 초반 0-5로 끌려갔지만 맹추격하며 11-10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22-22까지 접전을 이어갔으나 실바에게 연속 실점을 내줬고, 박경현의 공격이 와일러에 막히며 끝내 패배를 확정 지었다. **한규빈 기자**



광주FC가 6일 오후 3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FC 선수단이 지난 1일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와 2024-2025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팬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자신감 최고조’ 광주FC, 정규 라운드 유종의 미 거둔다

6일 안방서 FC서울과 최종전을 시즌 상대 전적 2전 전승

창단 첫 아시아 원정길에 올라 가와사키 프론탈레에 신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충전한 광주FC가 FC서울을 안방으로 불러

들여 정규라운드 유종의 미를 노린다. 올 시즌 2전 전승을 거둔 만큼 마지막 맞대결도 승리로 장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광주는 오는 6일 오후 3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서울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33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파이널 라운드에 앞서 정규 라운드 최종전으로 치러지는 이번 경기는 6개 구장에서 모든 경기가 동시에 Kick-off 된다.

현재 광주는 13승 1무 18패(승점 40)로 7위에 위치해 있다. 최근 리그에서는 연패에 빠지며 아쉬운 흐름이고 파이널B가 확정돼 나머지 다섯 개 구단과 강등 전

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는 잔류를 위해 최소 9위를 확보해야 한다. 다이렉트 강등을 당하는 12위인 천우나이트(승점 32)와는 8점, 승강 플레이오프에 나서야 하는 10~11위 대구 FC(승점 35·득점 36), 대전하나시티즌(승점 35·득점 35)과는 5점 차로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파이널 라운드는 A매치 휴식기를 가진 뒤 오는 19~20일께 시작될 전망이다. 광주는 파이널 라운드 돌입을 앞두고 정규 라운드 최종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최대한의 승점 확보와 함께 분위기 반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경기 상대인 서울에게 올 시즌 광주는 천적으로 군림하고 있다.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 2-1, 2-0 승리를 거두며 2전 전승을 기록했고 득점 루트 역시 이희균과 가브리엘 티그랑, 이건희, 베카 미켈 타제 등으로 다양했다.

광주가 직전 경기인 가와사키와 2024-

2025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 2차전에서 1-0으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는 것 역시 긍정적이다. 광주는 리그에서 연패의 흐름을 아시아 무대를 통해 끊어내며 공수 양면에서 충분한 자신감을 충전했다.

가와사키전을 통해 나타난 이번 경기의 키플레이어는 김진호가 될 전망이다. 올 시즌 활발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공수 전환을 선보이고 있는 김진호는 콜롬비아 20세 이하 국가대표 출신인 세사르 하이다르를 상대로 페널티킥을 얻어내며 자시르 아사니의 선제골 겸 결승골을 도왔다.

서울의 핵심 공격 자원인 제시 린가드와 윌리안 바르보자를 견제하는 것 역시 김진호의 몫이다. 김진호는 필드 내에서만큼은 베테랑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투지와 기세를 갖추며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선수단이 3일 경남 통영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 서울 Kixx와 2024 통영·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여자부 조별리그 A조 3차전을 앞두고 필수를 다짐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